

■ 지금 여기 ■

크림사태와 동유럽을 떠도는 ‘베르사이유 체제의 유령’

오 승 은

요사이 크림 반도 사태를 보고 있자면, 시계를 20여 년 전 발칸반도로 되돌려놓은 것 같다. 시점은 2014년이 아닌 1990년. 무대의 주역은 푸틴과 야누코비치가 아닌 밀로셰비치, 투지만, 이제베코비치. 우크라이나 영토 내 크림 반도에 사는 러시아인들이 독립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로,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 사는 세르비아인들은 자치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고 이어 독립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크림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와의 합병을 선언하듯, 이들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들은 세르비아와의 합병을 선언하였다. 마치 짜놓은 듯, 똑 같은 수순으로 전개되는 사태에 기시감마저 든다. 태어난 지 백 년이 다 되가는 베르사이유 체제가 어느덧 유령이 되어 발칸 반도에서 크림반도로 무대를 옮겨가며, 여전히 동유럽 언저리를 배회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되는 순간이다.

베르사이유 체제가 태어난 지도 벌써 한 세기가 되어간다. 올해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백주년이 되니, 그 종전협정인 베르사이유 협정이 탄생한 지도 그 만큼의 세월이 흘렀다. 합스부르크제국 지배하에 있던 동유럽 약 소민족들이 민족자결권을 행사하고 독립 국가를 선언하는 법적 근거를 세워준 베르사이유 조약. 그 고마운 조약 덕분에 동유럽 사람들 6,500만 명이 500년이 넘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생 독립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때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등학교 역사 수업 시간, 우리보다

수십 년 먼저 독립의 기쁨을 맞이했다고 동유럽 사람들을 막연히 부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민족자결주의를 선포했던 윌슨 대통령을 막연히 존경했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 문제는 베르사이유 조약이 동유럽에 희극의 기쁨과 비극의 고통을 동시에 안겨주는 국제 조약이었다는 사실이다. 제 1차 대전 후 동유럽에서 6,500만 명의 사람들이 독립 국가 수립의 기쁨을 만끽하는 사이, 또 다른 2,500만 명은 자신의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서 소수민족이 되어 2등 시민으로 살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독일인 125만 명이 폴란드에서, 325만이 체코에서 소수민족이 되었다. 헝가리인 500만은 ‘외국인’으로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등지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으며, 그 중 175만 명은 루마니아에 거주하였다. 세르비아인의 경우 전체 세르비아인의 1/4은 ‘세르비아 밖’에 거주하게 되었다. 다종교·다문화·다민족의 공간 동유럽에서의 소수민족 양산은 두고두고 민족분규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동유럽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대 세력이 교차하며 충돌, 갈등하는 ‘3종의 교차점’이라는 특성을 안고 있다.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서 동유럽은 동방 정교와 서방 카톨릭, 이슬람 문명이 서로 교차되며 형성되었고, 또한 이들 3대 문명을 근간으로 하는 비잔틴 제국, 합스부르크 제국,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지배를 500년 넘게 받아왔다. 이렇게 다종교·다문화·다민족의 공간이 바로 동유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빈 숲의 이야기(Tales from the Vienna Wood)』(1931) 작가 폰 호르바트(Ödön von Horváth)의 자기 정체성이다. 잠시 인용하자면,

내 국적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아드리아해 크로아티아의 항구도시 피우메에서 태어났고 베오그라드, 부다페스트, 프레스부르크(브라티슬라바), 빈, 뮌헨 등지에서 성장했다. 지금까지 헝가리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겐 조국이 없다. 나는 헝가리인, 크로아티아인, 독일인, 체코슬로바키아인으로 살아온 아주 전형적인 오스트리아-헝가리 사람이다. 현재 내 국적은 헝가리지만,

모국어는 독일어다.¹⁾

그러므로 이렇게 제 민족들이 난마처럼 얽히고 설켜 사는 동유럽이라는 공간에서 민족자결주의에 근간을 둔 베르사이유 체제는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민족자결주의에 근간을 둔 독립국가 수립이 지상명제가 된 시대에, 당연히 이들 2,500만 명의 소수민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지상명제를 실현하려 들었다. 동유럽에서 민족 분류라는 결코 끝나지 않는 도미노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족자결권은 원칙 상 숭고한 권리이다. 그러나 그 숭고한 권리가 다민족·다종교·다문화의 특성을 가진 동유럽 현실에서는 피를 부르는 ‘괴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야말로 ‘민족청소’를 감행하지 않고는 국가 간 경계선을 그을 수 없는 민족분포 구조 때문이다. 이러한 민족분류의 위험성은 지금은 해체되어 7개 신생국으로 뿔뿔이 흩어진 구(舊)유고슬라비아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다. 흔히 ‘모자이크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유고슬라비아의 구성은 복잡했다. 유고슬라비아는 2개의 문자(라틴/키릴문자), 3개의 종교(그리스정교/카톨릭/이슬람), 4개의 언어(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슬로베니아어, 마케도니아어), 5개의 민족(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 마케도니아인, 보스니아 무슬림), 6개의 공화국(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7개의 접경국(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알바니아, 그리스)으로 구성된 복잡한 나라였다. 민족분포를 보면 최대민족이라는 세르비아 민족만 해도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 48%를 차지했다. 세르비아 민족의 1/4은 세르비아 공화국 바깥에 사는데, 그것도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4개 공화국(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와 2개자치 지역(보이보디나와 코소보)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 결과 1989년 이후 밀로셰비치가 불러일으킨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바람은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에서 세르비아인이 사는 3개 공화국과 1개의 자치지역에서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전쟁을 일으키거나, 폭력을 동반한 민족 분류를 발발시켰다.

1) Mark Mazower, 김준형 역, 『암흑의 대륙』 (서울: 후마니타스, 2009), 74.

이처럼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동유럽 민족분포 상 특정 민족이 주장하는 민족 자결권 행사는 다른 민족의 영토주권을 침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식민제국으로부터의 독립 때는 담보되던 민족자결권 행사의 정당성이, 다른 동유럽 민족을 대상으로 할 때는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제국으로부터의 해방 시에는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주요하고 유용한 명분이 되는 민족자결주의이지만, 그 칼날이 다른 동유럽 민족을 향할 때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죽이는 부당한 폭력의 무기로 변하기 때문이다. 베르사이유 체제가 탄생 한지 한 세기가 지나도록 동유럽에서는 끝이 나지 않는 민족자결주의를 추구하는 민족분규로 인해, 베르사이유 체제는 원래 탄생 당시의 생명의 빛을 잃고 말았다. 같은 지역에 수백 년을 살아온 사람들을 다른 민족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쫓거나 죽여야만 수립할 수 있는 민족국가 수립이 정말로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인지, 다른 공생(共生)의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난 것이 아닌지 제고 할 필요성이 작금의 크림 반도 사태를 통해 다시 제고된다 하겠다.

흔히들 발칸 혹은 동유럽은 ‘유럽의 화약고’라는 결코 달갑지 않은 이름으로 불린다. 이 별칭에는 동유럽 사람들은 후진적이고 야만적이어서 폭력적 싸움만 일삼는 사람들이라는 다분히 오리엔탈리즘적인 비하 인식이 배태되어있다. 그러나 동유럽 제 민족 간의 피 터지는 싸움은 19세기 민족주의 열풍이 불면서 비로소 시작되었고, 특히 20세기 베르사이유 체제의 수립 이후 일부 민족에게는 민족자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일부에는 허용되지 않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원래부터 불구대천의 원수여서 싸우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1945년 알타 체제라는 외세 체제의 수립이후 어쩔 수 없이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된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유럽 사람들도 원래부터 폭력적 DNA를 갖고 태어나 서로를 죽이는 싸움을 일삼는 것은 아니다. 21세기가 되도 20세기 중반 탄생한 분단이라는 알타 체제의 비극을 한반도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듯이, 발칸반도와 크림 반도는 민족분규라는 20세기 전반 탄생한 베르사이유 체제의 비극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와 동유럽은 구시대의 유령을 안고 사는 동병상련을 앓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알타 체제와 베르사이유

크림사태와 동유럽을 떠도는 ‘베르사이유 체제의 유령’

체제라는 ‘구시대의 유령’을 각기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과 서쪽 끝에서 쫓아낼 수 있는 퇴마의 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때라 할 것이다.

한양대학교 수행인문학부, narodna21@hanmail.net